北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응원단·예술단 파견하겠다"

남북 고위급회담서 전격 합의

참관단·예술단·태권도 시범단도 파견
9일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도 성사될 듯
IOC, 와일드카드 활용한 北 출전 검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사상 최초로 참관단과 예술단을 파견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월 9일 개막식에서 남북한 공동입장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정부 대표단은 북측에 공동입장 및 대표단, 응원단 파견을 요청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내 열린 국제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참관단과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이 찾은 적은 없다. 남북 조율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방문단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 공동입장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적이 있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와일드카드를 활용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환영하고 있다. 참가선수는 숫자는 2002, 2014 아시안게임과 비교해 적은 숫자로 예상된다. 북한은 피겨 스케이트 페어에서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참가 신청 기한을 넘겨 무효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참관단, 응원단, 예술단 파견을 요청해 상당수 인원의 참가가 예상된다.

북한은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288명의 응원단이 참가했고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도 303명의 응원단이 파견됐다. 2005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도 124명의 응원단이 함께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는 대회개막 20일전에 응원단 파견이 취소된 적이 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정부 대표단은 설 명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북측은 패럴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대규모 인원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이 확정될 경우 숙박시설 등 추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공동 입장해 전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이 논의됐다. 스포츠동아 DB

올림픽 3연패 위대한 여정…빙속여제 이상화 '0.2초 전쟁'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한국 빙상 금메달 기상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유치에 성공한 뒤로 7년 가까운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거친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꿈'이 마침내 눈앞으로 펼쳐진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 은메달 4,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입상을 목표로 세운 태극전사들의 심장박동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출전하면 '평화올림픽'이라는 슬로건까지 달성할 수 있다. 30일 뒤 펼쳐질 지구촌 최대의 '눈과 얼음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을 미리 들여다본다.

'여제' 이상화는 2010 밴쿠버~2014 소치에 이어 2018년 평창에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신화에 도전한다. 스포츠동아 DB

체력부담 큰 빙속에서 12년째 정상급 기록
월드컵서 36초대 진입, 고다이라 턱밑추격
3연패땐 동·하계올림픽 한국선수 첫 쾌거
"한국서 열리는 올림픽, 후회 남기지 않겠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스피드스케이팅의 '여제' 이상화(29·스포츠토토)가 올림픽의 새로운 신화에 도전한다.

이상화는 2개의 올림픽 메달을 갖고 있다. 평창은 자신의 네 번째 올림픽이자 3회 연속 금메달 도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무대다.

올림픽역사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회 연속 금메달은 단 한명만이 갖고 있는 신화다. 주인공은 미국 보니 블레어(52)로 1988캘거리~1992알베르빌~1994릴레함메르 올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보니 블레어의 기록과 이상화의 도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86년, 매회 같은 해에 열렸던 여름과 겨울 올림픽을 2년 간격으로 치르기 위해 1996년 개최 예정이었던 동계올림픽을 1994년으로 앞당겼다.

보니 블레어는 1000m에서도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갖고 있는 대 선수지만 동계올림픽 개최년도 조정으로 6년 동안 3연속 500m 우승을 달성했다. 반면 이상화는 이보다 2년이 긴 8년 동안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육상, 수영, 스피드스케이팅 등 스프린터 종목에서 신체적 나이는 절대적이다. 종목 특성상 2년의 시간동안 선수의 전성기가 지나고 은퇴를 맞을 수 있을 만큼 길다.

이상화는 고등학생이었던 2006년 토리노대회에서 처음 올림픽에 데뷔해 500m 5위에 올랐다. 이후 올해까지 12년 동안 세계최정상급 기록을 유지해왔다.

2010년 밴쿠버에서 한국여자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수상했다. 2014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고 한해 전인 2013년에는 여자 500m 세계 신기록 36초36을 달성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이상화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점차 기록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여자500m 월드컵랭킹은 일본 고다이라 나오(32)에 뒤진 2위지만 격차를 좁히며 평창에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화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 36초71을 기록하며 36초대에 진입했다. 고다이라와 기록 차이는 0.2초대다.

이상화의 올림픽 3연패는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여자선수로 첫 도전이라는 큰 의미도 함께한다. 한국 선수 중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은 하계올림픽 남자 사격 50m 공기권총 진종오가 유일하다.

이상화는 한국에서 열리는 자신의 4번째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관중들의 함성 속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며 금빛 역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다관왕 꿈꾸는 스타들

최민정·심석희 금잔치 준비 세계1위 이승훈 2관왕 예약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수집가'들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하계올림픽만큼은 아니지만, 동계올림픽 다관왕도 역대로 꾸준히 배출됐다. 평창에서도 홀로 금메달 2~3개를 목에 건 월드스타들이 여러 명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태극전사들을 살펴보면 여자쇼트트랙의 최민정(20)과 심석희(21), 남자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30)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최민정은 개인전인 500·1000·1500m와 단체전인 3000m 계주까지 여자쇼트트랙에 걸린 금메달 4개를 모두 휩쓸 수 있는 기량을 갖췄다. 이미 2017~2018시즌 월드컵 1차 대회에서 4관왕을 이룬 바 있다. 4년 전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메달 3개(3000m 계주 금·1500m 은·1000m 동)를 목에 걸었던 심석희도 500m를 제외한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툴 수 있는 세계적 스타다. 최민정과 심석희가 쌍두마차로 나선 여자대표팀은 평창에서 다시 한 번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할 참이다.

남자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 이승훈도 2관왕에 도전한다.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는 물론 남자팀추월에서도 후배들과 함께 금메달을 노린다. 이승훈은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남자 5000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1만m에선 행운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소치동계올림픽 때는 남자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해외스타들 중에선 단연 미국여자스키의 간판 미케일라 시프린(23)과 '스키황제' 마르셀 히르셔(29·오스트리아)를 꼽을 수 있다. 시프린은 8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크란스카고라에서 펼쳐진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여자 회전에서 우승해 올 시즌 이 대회에서만 9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시프린은 평창에서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 복합(활강+회전) 등에서 최대 5개의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히르셔도 같은 날 스위스 아델보덴에서 열린 월드컵 남자 회전에서 우승해 이 대회에서만 올 시즌 7승째, 통산 52승째를 챙겼다. 평창동계올림픽 회전과 대회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서른살 늦은 나이에 단거리 휩쓴 '무관의 베테랑'

이상화의 숙적 고다이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3연패(스피드스케이팅 여자500m) 신화에 도전하는 '여제' 이상화(29·스포츠토토)는 고다이라 나오(32·일본)라는 강력한 라이벌과 일전을 앞두고 있다.

고다이라는 스프린터 종목선수로는 매우 고령인 만 32세지만 뒤늦게 만개하며 여자500m는 물론 여자1000m에서도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고다이라는 올림픽 데뷔도 세살 어린 이상화보다 4년 늦었다. 이상화가 금메달을 목에 건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 첫 출전해 12위를 기록했다. 이상화는 2013년 세계신기록(36초36)을 달성했고 2014년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며 '빙속여제'가 됐지만 고다이라는 5위에 그치며 메달수상에 실패했다.

고다이라는 소치 올림픽 직후 이미 은퇴를 생각할 28세 나이가 됐지만 스케이트 강국 네덜란드로 떠나 올림픽 금메달 3개를 가진(1998 나가노 1000m, 1500·2006 토리노 1000m) 마리안네 팀머(44)에게 집중 지도를 받았다.

고다이라

서른살을 앞두고 2년간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레이스 기본자세까지 바꾼 고다이라는 전혀 다른 선수로 변신했다. 2014~2015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시리즈부터 500m에서 이상화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고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을 휩쓸었다.

세계랭킹 2위 이상화는 올림픽에서 이미 2개의 금메달을 품었다.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새로운 신화를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희망하고 있다. 고다이라는 세계랭킹 1위지만 올림픽에서만큼은 도전자다. 아직 단 1개의 올림픽 메달도 없다. 다음 올림픽이 열릴 때는 이미 36세 나이가 된다. 올림픽 마지막 레이스에서 첫 메달에 도전하는 절박함이 큰 강점이자 부담인 양날의 검이다. 이경호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